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소문관 기자 | 승인 2026.04.23 13:25

이상기후 대응·배수시설 운영 점검...농업용수 절약 공감대 형성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태용)는 지난 22일 유관기관과 운영대의원,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용수 절약 방안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이 안내됐다.

특히 용동면과 용안면 등 상습 침수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배수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병행됐다.

또한 저수지 붕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처 훈련을 실시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했으며, 수리시설 감시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절약과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부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 농업인들은 용수 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노후 수리시설 정비 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김태용 지사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 강화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문관 기자** mk7962@hanmail.net